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6일 토요일 |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 65호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산하 서해지구 항공구락부를 지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3일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산하 서해지구 항공구락부를 지도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을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오금철상장과 항공구락부의 지휘성원들이 영접하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 일성**주석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 보신 다음 녀성구락부생들의 비행훈련을 보시였다.

능숙한 비행술과 완강한 투지를 소유한 녀성구락부생들은 어렵고 복잡한 기술동작들을 제때에 원만히 수행하고 기지로 돌아 와 그이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용감한 녀성구락부생들을 몸가까이 불러 주시여 훈련정형을 료해하시고 모두가 높은 비행술과 튼튼한 육체를 가진 녀장수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따뜻이 고무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청소년들에게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워 주고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 피울수 있게 하는 항공구락부는 나라의 항공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구락부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이어 구락부생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 주신 그이께서는 항공구락부생들은 하늘에서 높은 정신육체적부담을 받으며 훈련하는것만큼 이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구락부생들이 진행하는 시랑송발표모임도 친히 보아 주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이날 오랜 기간 항공부문에서 근무한 부부비행사들을 만나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부비행사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시고 조국보위와 나라의 항공기술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항공구락부생들의 예술소품공연도 보아 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항공구락부의 종업원들, 구락부생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과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리명수대장이 동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2/04/04

2 노작
- 주체사상에 대하여(9)

4 세기와더불어
- 5장 4절 혈전의 준비 (2)

6 칭송
- 의 리
- 모란봉기슭에서
- **김정일**비서는 새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이시다

7 구국의 소리
- 부정부패의 왕초 이회창을 매장하자
- 구국의 소리 뉴스 – 4월 4일
-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그 저의
- 외세의존은 반민족행위
- 이른바 ≪생활안정운운≫은 국민기만이다

10 조선중앙방송
- 주체91, 4월 3일~4일 보도
-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생활기풍을 활짝 꽃 피우자 (2)

12 평양방송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이시다

13 아리랑뉴스
- 먹지말자! 맥도널드 햄버거, 잊지말자 오! 노!
- ≪한총련 합법화 필요한가≫ 최초 공개 토론회 계획
- 한–미동맹, 자주국방은 없다

15 운동강좌
-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혁명전통
-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사회계급적 기초

16 조국통일3대헌장
- 90년대통일에로 (3)

≪한나라당≫패당이 집권하게 되면 전쟁밖에 터질것이 없다

≪로동신문≫ 4일부는 최근 남조선 ≪한나라당≫이 꾸며 낸 ≪대북기본로선≫은 이 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호전적정체를 낱낱이 드러내 보여 준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반역패당이 들고 나온 ≪선평화, 후교류협력원칙≫이란 뒤집어 놓은 반평화, 분렬대결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 전쟁의 위험이 제거되자면 그 화근인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새 전쟁도발책동이 끝장나야 한다. 그런데 리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미제의 비호밑에 일신의 향락과 더러운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제발 나가지 말아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 평화보장에서 선결조건인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반대하면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교류협력을 해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궤변은 결국 북남사이의 협력, 교류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수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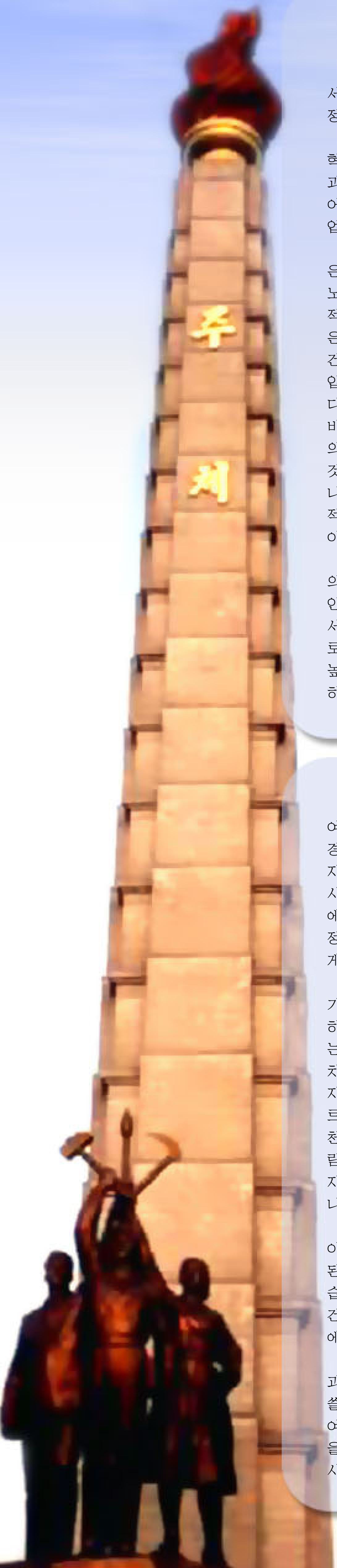
그것은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가로 막고 조선민족의 자주통일에 훼방을 놓으며 힘으로 전조선을 타고 앉으려는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론평은 남조선에서 ≪한나라당≫패당이 집권하게 되면 전쟁밖에 터질것이 없으며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개선도, 6.15공동선언리행도 다 하늘로 날아 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2/04/04

주체사상에 대하여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 주체71(1982)년 3월 31일



② 정치사업선행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만큼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사람과의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정치사업이며 사람들의 사상과의 사업입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인민대중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 혁명이란 자각적인 투쟁입니다. 혁명은 남이 시키거나 그 무슨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자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는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입니다.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들의 높은 정치적 자각성과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는 것이 합법칙적입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자각적 열성을 높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행정실무이나 기술경제사업을 홀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을 이에 옳게 결합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은 전사회적 규모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업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복잡한 사업입니다. 치밀한 행정조직사업, 과학적인 기술경제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필수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사업, 기술경제사업 자체도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조건에서만 잘 될 수 있습니다. 정치사업을 줴버리고 기술경제적인 실무사업에만 매달려서는 어떤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자면 또한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옳게 배합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징은 그 공산주의적 성격에 있습니다. 정치도덕적 자극은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것이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는 과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여기에는 노동의 질과 양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실시하여야 하며 물질적 자극을 무시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정치도덕적 자극을 차요시하고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성격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로자들 속에서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그들을 돈이나 물질에만 매어달리게 하며 결국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부식시키는 매우 위험하고 유해로운 편향입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어디까지나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이 굳게 단결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일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여야 인민대중이 나라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입장과 태도를 올바로 가지고 자각적 열성을 내어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치사업은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치사업은 사람과의 사업, 그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사업입니다.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주의적 방법으로써는 결코 사람들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타이르고 깨우쳐주는 설복과 교양의 방법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킬 수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연계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여야 합니다. 정치사업은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서 진행되며 각이한 수준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적인 사업인 것만큼 그 어떤 한가지 처방이나 틀에 맞추어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사업은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공적으로 벌여나가야 합니다.

정치사업은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벌여나가야 합니다.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정치사업은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원래 혁명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일군이 되어야 하며 모두가 대중의 교양자, 조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정치사업에 인입하며 그것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 우월한 방법입니다.

정치사업은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합니다. 정치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사업의 성과는 반드시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 성과로 나타나야 하며 또 그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혁명과업수행과 동떨어진 정치사업, 혁명과 건설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치사업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5.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

주체사상은 인류의 사상정신생활과 세계의 혁명적 변혁과정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시대의 역사적 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공인된 시대적 사조로 되고 있으며 역사의 전진을 더불어 그 견인력과 변혁적 의의는 더욱더 커가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혁명적 세계관을 밝혀주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사상발전과 해방위업에 이바지한 주체사상의 중요한 역사적 공헌입니다.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관점과 입장은 오랜 역사에 걸쳐 발전하여 왔습니다.

지난날 세계관의 발전역사는 상반되는 두 철학조류인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역사였습니다. 맑스주의는 이 투쟁에서 유물론과 변증법의 승리를 확정하였습니다. 맑스주의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의 출현은 당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노동계급이 역사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인류역사에는 새시대가 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본을 반대하는 혁명의 서막이 오른 새로운 역사적 조건은 투쟁에 일떠선 노동계급에게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을 깨우쳐주는 혁명사상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면에 나선 문제는 반동적인 자본의 지배를 신성화하고 그 영원성을 설교하는데 복무하여온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타파하고 노동계급의 과학적인 세계관을 밝혀주는 것이였습니다.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은 바로 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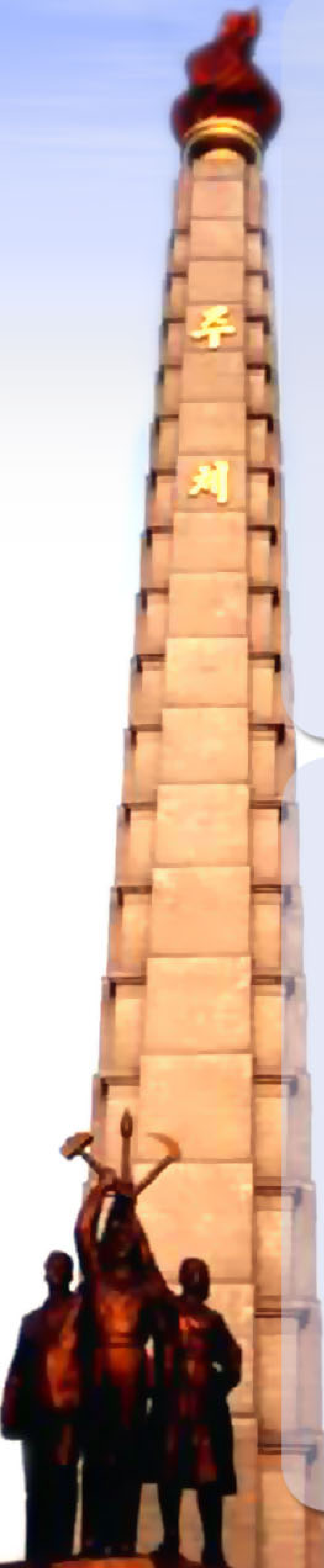
시대의 발전은 세계관의 발전을 동반합니다. 노동계급의 진출과 함께 개시된 혁명의 끊임없는 확대발전은 이제까지 역사의 대상으로 되어온 근로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역량으로 등장한 새시대는 그들이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역사적 과제는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

새시대의 세계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그 초석을 이루는 철학적 원리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것입니다.

종래에는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았습니다. 물질의 일차성, 존재의 일차성에 관한 맑스주의

➡

주체사상은 우리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혁명적 세계관을 밝혀주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사상발전과 해방위업에 이바지한 주체사상의 중요한 역사적 공헌입니다.



유물론적 원리는 이 문제에 과학적 해명을 주었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습니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문제는 선행철학들에서도 수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대부분 그것은 사회적 관계를 떠나 순수 인간에 대한 추상적인 견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맑스주의에 의하여 사회적 관계속에서 제기되고 해명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사회적 관계속에서 보면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 해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이 사회적 인간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천명한 것은 세계관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게 한 철학적 발견으로 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 다시 말하여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세계의 개조자, 자기운명의 개척자라는 사상은 관념론이나 형이상학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됩니다. 관념론이 세계와 사람의 운명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신비주의에 귀착된다면 형이상학은 세계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며 따라서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숙명론에 귀착됩니다.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은 신비주의와 숙명론을 부인한 유물론적, 변증법적 입장을 전제로 합니다.

주체사상은 물질세계발전의 최고산물인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그 개조발전의 원리를 독창적으로 정식화함으로써 세계관의 초석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세계관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역사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세계관이 있었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힌 것은 없었습니다. 세계를 관념이나 정신의 세계로 보는 관념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난시기 세계를 물질의 세계로 본 유물론자들도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종래와는 달리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와 그 변화발전에 대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였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주체의 관점과 입장은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됩니다.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관점과 입장을 밝힌 주체사상은 사회역사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혁신하였습니다. 맑스주의 이전에는 유물론이나 변증법을 제창한 사람들도 사회역사에 대해서는 관념론적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맑스주의는 사회도 자연과 같이 물질세계에 속하며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따라 변화발전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역사에 대한 관념론적 견해를 타파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사회역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시인하면서 사회역사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노동계급의 사회역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주체사상의 중요한 공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회역사원리는 주체사관의 기본내용을 이룹니다. 이것은 주체의 운동인 사회역사적 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새로운 해명으로 됩니다.

(내일 계속)

정치사전

주체사상에 대하여 (5)

로작의 넷째 체계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서는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을 밝혔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자기의것에 정통하여야 하며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하며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로작은 다음으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시 위하여서는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것을 밝혔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하며 주체적인 정치적력량을 꾸려야 하며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로작은 다음으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것을 밝혔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민족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 내야 하며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로작은 또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것을 밝혔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위적무장력을 가져야 하며 전 인민적, 전 국가적 방위 체계를 세워야 하며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자위적국방공업을 건설하여야 하며 후방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헌의 이 체계에서는 또한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밝혔다.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창조적방법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 세워야 하며 혁신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군중적운동을 널리 벌려야 하며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로작은 다음으로 실정에 맞게 하는 창조적방법을 밝혔다. 실정에 맞게 하는 창조적방법을 구현하자면 자기 나라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규정하여야 하며 기성리론에 옳게 대하여야 하며 시대의 력사적조건과 자체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여야 하며 남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로작의 이 체계에서는 다음으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 쥘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밝혔다.

로작은 먼저 사상개조를 선행할데 대하여 밝혔다.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이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따라서 혁명관을 옳게 세우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혁명관을 바로 세우자면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하며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혁명관이 옳게 섰는가 안 섰는가 하는것은 혁명적실천에 의하여 검증되여야 한다. 혁명관이 바로 선 공산주의혁명가가 되자면 혁명적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혁명적실천속에서 단련하여야 한다.

(내일 계속)

2권 제5장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2. 9.18사변
3. 무장에는 무장으로
4. 혈전의 준비
5. 새 무장력의 탄생

4. 혈전의 준비 (2)

첫 공격목표로 쌍변준이라는 지주의 집이 선정되었다. 그의 수하에는 40명 가량되는 보위단이 있었다. 단장은 훗날 ≪신선대≫대장으로 악명을 떨치다가 최현동무네 부대에 녹아난 리도선이라는 자였다. 보위단병실은 지주집 토성 안에도 있고 토성밖에도 있었다. 우리는 사전정찰을 진행한 데 기초하여 유격대소조성원들과 적위대원들로 습격조를 편성하고 소사하 본부락에 있는 쌍병준이네 집을 불의에 기습하여 10여자루의 총을 탈취하였다.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투쟁은 두만강연안의 모든 곳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힘차게 벌어졌다. 혁명군중은 ≪무기는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에로!≫라는 구호를 들고 유격대소조성원들과 적위대원들, 소년선봉대원들, 지방돌격대원들을 선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떨쳐일어나 일제침략군대와 일만경찰들, 친일지주들과 반동관료배들의 무기를 빼앗는 투쟁을 결사적으로 벌이었다.

≪요창부요밍!≫이란 그때에 나온 말이다. 이것을 조선말로 반역하면 총만 필요하고 목숨은 필요없다는 뜻이 된다. 세관이나 보위단이나 공안국이나 지주집같은데 가서 총을 내들고 ≪요창부요밍!≫하고 소리치면 겁많은 관리나부랭이들과 반동지주들, 경찰관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무기를 다 내놓았다.

≪요창부요밍!≫이란 말은 동만의 모든 혁명조직구들에서 하나의 유행어로 널리 사용되고 전파되었다. 오중화의 아버지와 삼촌도 밥상다리로 만든 가짜 권총을 들고 ≪요창부요밍!≫으로 경찰과 자위단원들을 위협한 다음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적위대에 보내주었다. 그 소문이 안도에까지 퍼져왔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로인들의 기지와 대담성에 탄복하였다. 훗날 왕청에서 오태희로인을 만나 ≪어떻게 되어 그런 멋있는 궁리를 하시었습니까?≫하고 물으니 로인은 웃으면서 ≪밤에 보니 밥상다리도 권총 같습디다. 우리한테야 총이 있습니까, 작탄이 있습니까, 그래서 밥상다리를 꺼내들었지요. 급하니까 그런 궁리도 납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로인의 말이 과연 옳았다. 정말 우리는 그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무기를 탈취하는 싸움에 과감하게 몸은 내던지었다. 그것은 최대한의 창발성과 지혜를 요구하는 힘겨운 싸움이었다. 동만의 혁명가들과 혁명적 인민들은 때로는 헌병으로, 때로는 구국군부대 군인으로, 때로는 일본령사관 관리나 대부호, 무역상 같은 것으로 변화무쌍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정황에 맞게 림기응변하면서 무기를 탈취하였다. 어떤 고장에서는 녀성들이 빨래망치나 곤봉으로 군경들을 때려눕히고 무기를 탈취하였다.

선전화
- 무기탈취

무장을 얻기 위한 투쟁은 전민항쟁의 개시를 위한 서막이었고 예비적인 싸움이었다.

이 싸움에는 모든 혁명조직들이 다 발동되었고 전민이 다 동원되었다. 혁명이 무기를 요구하는 시기가 도래하자 군중은 서슴지않고 이 싸움에 떨쳐나섰다.

그과정에 그들은 각성되었다. 자기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자각한 것이다. 자기 무기를 자기가 해결하라고 한 우리의 구호는 도처에서 큰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물론 이러한 투쟁행정에서 우리는 많은 혁명동지들을 잃었다. 그때 우리가 마련한 한자루한자루의 총에는 혁명동지들의 뜨거운 피가 스며있었고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구호를 들고 무기를 자체로 만들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벌이었다. 처음에는 야장간에서 쇠를 달구어 칼이나 창과 같은 도창무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권총과 작탄을 만들어냈다. 그런 권총 가운데서 제일 정교하고 쓸모있게 만들어진 것은 왕청현 남구반제청년 동맹원들이 제작해낸 ≪비지깨권총≫이었다. 함경북도지방 사람들은 로씨야식으로 성냥을 ≪비지깨≫라고 하였다. 그 권총을 ≪비지깨권총≫이라고 한 것은 딱성냥으로 총알화약을 만들어 약통실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총신도 양철로 자작 만들었다. 동만의 병기창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화룡현 금곡에 있던 신성덕수리바위굴병기창과 왕청현 남구병기창, 연길현 의란구 남양촌의 주가골 병기창과 왕청현 남구병기창, 연길현 의란구 남양촌의 주가골병기창들을 들 수 있다. 수리바위골에 있던 병기창에서는 연길현 팔도구광산의 혁명조직을 통해 얻은 폭약으로 폭탄까지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소리폭탄이라는 폭탄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 폭탄은 소리만 요란했지 살상력이 별로 없었다. 그 약점을 퇴치하려고 만든 것이 고추폭탄이었다. 소리폭탄보다야 효과가 좋았지만 이 폭탄도 역시 냄새만 지독했지 살상력은 거의 없었다.

화룡동무들은 그후 고춧가루 대신 쇠쪼각을 넣어 살상도가 높은 폭탄을 만들었다. 그 폭탄이 바로 유명한 연길폭탄이다. 연길폭탄이 세상에 나온 다음 우리는 화룡에 있는 박영순을 데려다가 소왕청 대방자에서 이틀동안 작탄강습회를 조직하였다. 동만각지에 작탄제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이 강습회에는 간도 여러 현들에서온 병기창 성원들과 유격대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나는 첫날 강습에 출연하여 화약제조방법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그 당시 유격대의 병기창들에서는 작탄을 만들 때 쓰는 화약을 광산에서 비밀리에 구입해오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적들이 화약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였다. 우리는 민가에서 자체로 쉽게 화약원료들을 채취하여 그것으로 폭약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강습회에서는 그 비결을 전습시키고 각 지방에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박영순은 작탄 제조법과 그 사용법, 보관취급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그들이 화룡에서 자력갱생하여 개발해낸 폭탄제조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강습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찬탄을 자아냈다. 수리바위굴병기창을 주관한 박영순, 손원금 동무들이 아주 재간있는 동무들이었다. 훗날 이 병기창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믿음직한 무기제조기지, 수리기지로 되어 항일전쟁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만일 어느 문필가가 무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성과 대담성, 림기응변의 기지와 비상한 창발성에 대한 일화들을 종합하여 형상적 화폭으로 펼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의 장엄한 서사시로 엮어질 것이다. 수천수만년 력사밖에 값싼 로동력으로 밀려나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헤매이던 인민대중, 망국민의 서러운 신세에 이를 갈고 피눈물을 뿌리면서도 그것이 숙명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던 소박한 인민대중이 마침내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투쟁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지방조직들에서 로획했거나 제작해낸 무기를 볼 때마다 나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개척하려고 한 우리의 결의가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재삼 자랑스럽게 확인하군 하였다.

박영순

우리는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면서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인민대중을 실천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단련시켜 그들을 항일전쟁에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필수적 요구였으며 광범한 대중이 자각적으로, 거족적으로 동원되는 바로 최후승리의 담보가 있었다.

1930년의 전례없는 흉작과 그에 따르는 혹심한 기근은 우리가 동만에서 추수투쟁에 이어 새로운 대중투쟁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는 추수투쟁을 통하여 앙양된 군중의 투쟁기세를 늦추지 않고 일제와 친일지주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춘황투쟁을 벌이도록 하였다. 춘황투쟁은 지주에게 쌀을 꾸어달라는 차량투쟁으로 시작되어 일제와 친일지주들의 량곡을 몰수하는 탈량투쟁으로, 일제의 앞잡이들을 청산하는 폭력투쟁

➡

으로 급격히 발전하였다.

춘황투쟁의 불길 속에서 동만지방 인민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은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하였다. 혁명에 대한 반혁명의 공세가 그처럼 악랄해지고 있는 환경속에서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인내성있게 그들을 계몽하고 교양하였다. 대중단체들은 관문주의의 틀을 마스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며 대중을 실천투쟁 속에서 부단히 단련시키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디서나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헐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였다. 한 마을을 혁명화하는 과정에 여러명의 혁명가들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참기 어려운 수모와 불신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혁명가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푸르허마을에서 겪은 체험도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푸르허는 안도에서 돈화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동네였다. 이 동네를 거치지 않고서는 돈화지방이나 남만일대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으며 이 마을을 혁명화하지 않고서는 소사하, 대사하, 류수하를 비롯한 린접마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조직에서 유능한 공작원들을 여러 명 파견하였으나 가는 족족 다 실패하였다. 거기에 조직을 당장 박아넣어야 하겠는데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잡혀서 목숨을 잃으니 묘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김정룡은 푸르허를 반동동네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 스파이나 무슨 백색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정체를 밝혀낼 수 없다고 분해하였다. 이 동네에 대한 말만 들으면 나도 이상한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반일인민유격대 무기류

푸르허에 송씨성을 가진 조직원이 한명 있었으나 그 동무의 힘만 가지고서는 반동분자를 색출해낼 수도 없었고 동네를 혁명화할 수도 없었다. 누구든지 목숨을 내대고 들어가서 잡아낼 것은 잡아내고 조직할 것은 조직하여 이 마을을 반동동네로부터 혁명동네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되어 내가 푸르허에 가겠다고 자원해나섰다.

나는 소사하에 송동무를 불러다놓고 미리 약속을 하였다.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 동무네 집에 일손이 달려서 머슴꾼 총각을 하나 얻어온다고 소문을 퍼뜨리오. 그러면 내가 동무네 집에 가서 머슴군노릇을 하겠소.≫

송동무는 눈이 휘둥그레서 반동이 심한 마을인데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하겠는가, 게다가 머슴꾼 노릇을 하겠다니 말이나 되는가고 하면서 도리를 흔들었다. 내가 푸르허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에서도 반대하였다. 나는 반대를 무릅쓰고 송동무와 함께 소발구에 앉아 푸르허마을로 들어갔다. 세수도 하지 않고 리발도 하지 않고 일부러 반편같은 용모를 해가지고 반동소굴에 침투하였다.

몇시간 후 내가 송동무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난데없는 기마경찰대가 먼지를 일쿠면서 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련락이 닿았는지 벌써 안도에서 경찰을 급파한 것이다.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기마대가 온다고 아우성치지 나는 마당에 나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기 시작했다. 교하의 이름모를 녀인네 집에서 겪은 것과 비슷한 정황이라고 할가. 기마경찰들은 나를 가리키며 누구인가고 물었다. 그러자 송동무가 자기 집 머슴이라고 대답하였다. 한 기마경찰이 ≪공산당간부 한 사람이 이 마을에 지도를 내려왔다고 하던데≫하면서 기웃거리었다. 양복이나 쭉 뽑아입고 번듯하게 차려입은 간부를 념두에 두고 달려왔는데 허줄한 덧저고리를 입고 얼굴에 검댕이 가지 묻은 나를 보고는 헛걸음을 했다고 실망한 모양이였다. 나는 그때 우리 대렬내에 혹시 적과 내통하는 불순분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까지 품었다. 내가 푸르허에 침투하는 것은 몇몇 책임일군밖에 몰랐기 때문이였다.

기마경찰들이 돌아간 다음 송동무를 돌아보니 얼굴이 싸가매지고 이마에 식은 땀이 베여있었다.

나는 다음날부터 이른새벽에 일어나 주인집의 물도 긷고 나무도 패고 마당도 쓸고 소여물도 끓이었다. 그리고는 송동무와 함께 소발구를 타고 매일 산으로 갔다. 산에 가서는 문건도 보고 나무도 하고 사업토론도 하면서 송동무에게 한가지 한가지씩 일거리를 주었다.

나는 착실한 머슴군으로 동네에 소문났다. 그때 푸르허 사람들은 나를 어리무둔한 머슴군으로만 알았다. 우물터에서 얼음이 얼면 동네아낙네들이 나보고 손을 까닥까닥 흔들어 얼른 여기와서 얼음을 까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그런 부탁도 달게 받아들이었다. 마을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많이 시킬수록 내 몸에는 머슴의 체취가 깊이 배일 것이고 내가 그들의 청탁을 성실하게 들어줄수록 밀정들은 나에게 혁명가의 표정을 쉽사리 찾아낼 수 없게 되겠기 때문이였다.

하루는 송동무네 맞은편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이 밀려와서 나더러 떡을 쳐달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이니 의례히 그런 일은 본때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였다.

농사로 한생을 늙어온 우리 할아버지는 보삽질, 작두질, 떡메질 세가지를 다할 줄 알아야 진짜배기 농사군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떡을 쳐본 일이 없었다. 우리 집 살림살이는 떡을 쳐 먹으면서 호강하리만큼 풍족하지 못하였다. 마을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자니 내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아 걱정되었고 그 청을 거절하자니 머슴답지 않은 처사인 것 같아 주저하였다. 그래서 어츰에는 집일이 바빠 가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러 번 찾아와서 자꾸 독촉하는 바람에 더 버티여낼 수가 없었다. 내가 잔치마당에 나타나자 집주인들은 일손을 덜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몸집이 강마른 앞집 중로인의 손에서 떡메를 빼앗아 내 손에 쥐어주며 ≪이 사람, 오늘 떡맛은 임자의 솜씨에 달렸으니 한번 본때를 보이게.≫라고 하였다.

남의 속내도 모르고 방금 찐 떡쌀을 함지박에 담아내오라고 수선을 떠는 안주인의 거동을 보니 우습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머슴의 솜씨를 보겠다고 내 량옆에 진을 치고 서 있었다. 농촌에서는 떡치는 솜씨를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멋이고 생활이였다.

나는 떡메를 쥔 손에 침을 바르며 속으로 에라, 될대로 되어라. 힘자라는 껏 떡메를 휘둘러보자. 이놈의 일도 사람이 하는 노릇이겠지, 머슴이라고 만사를 통달하는 법이야 없지 않겠는가. 기껏해서 솜씨가 서투르다는 비난이나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 때 내 심증을 알아차린 송동무가 나를 딱한 처지에서 구원해주었다. 그는 ≪이사람, 그 팔을 가지고 어떻게 떡을 친다고 그래? 내가 팔을 잘 건사하라고 몇번이나 당부하든가.≫하면서 일부러 위엄을 풍기며 나를 핀잔한 다음 잔치집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어제 나무하러 갔다가 팔을 상해서 떡을 치지 못해요. 이웃집 경사인데 내가 대신 쳐주지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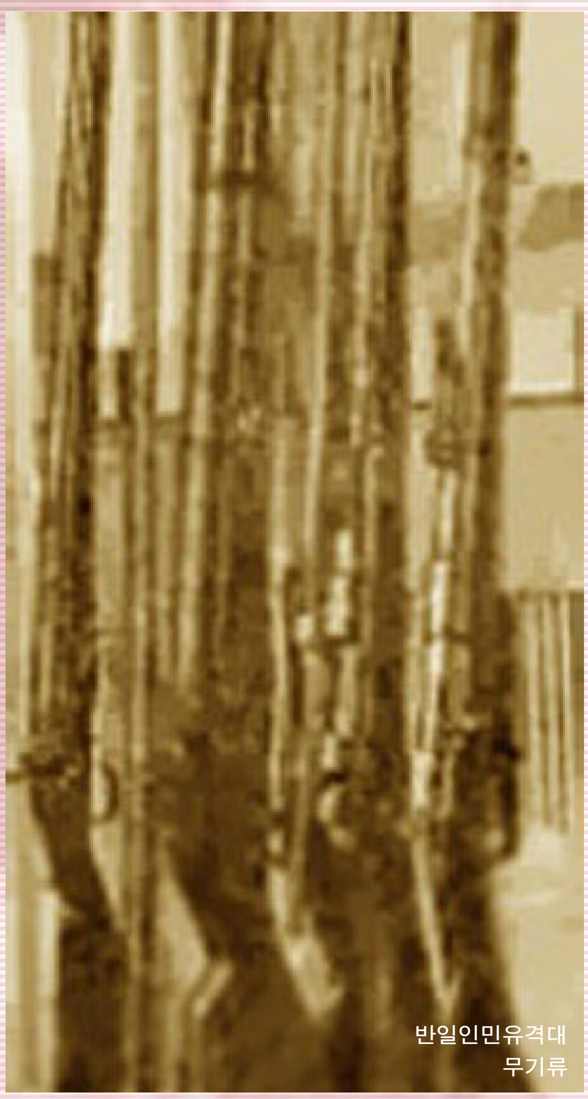
마을녀자들은 그날 손님들에게 떡을 나누어줄 때에도 머슴군 대접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릇에 떡을 담아주면서도 나에게만은 그저 손에다 쥐어주었다. 나는 마을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수모하는 데 대하여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푸르허를 혁명화하는 과정이 이처럼 간단치 않았다. 오가자를 혁명화하는 과정에 고초가 많았다고 하지만 이 고장의 혁명화과정에 비하면 식은 죽먹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마을에 달반가량 있으면서 조직을 꾸리고 핵심청년들을 발동시켜 밀정도 청산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온 다음 동무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나는 그때 동무들에게 ≪어데든지 혁명가들이 배기지 못할 곳은 없다.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신사식으로 혁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한 후 나는 부대를 데리고 푸르허에 간 적이 있었다. 빨찌산대장이 되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들려 군중대회를 열고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였다.

나에게 얼음을 까달라고 손목을 까닥거리며 불러대던 젊은 녀인이 연설을 마치고 말안장에 올라앉은 나를 보고 너무 놀라 ≪에구,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던 머슴군총각이 아니요? 저이가 혁명군대장이 됐구려.≫라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우리 앞에 가로놓였던 난관은 이렇게 극복되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난문제는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은 류혈을 가져다주었던 구국군부대와의 사업이였다.

(끝)


반일인민유격대 무기류

일화

의 리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위해 투쟁한 혁명가들을 높이 존대하십니다.

1971년 8월 김일 제1부주석(제1부수상으로 사업할 때)이 어느 한 요양소에서 병원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아침 첫 방문자로 불현듯 찾아오신 장군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반갑고 황송해 ≪이 늙은게 뭐라고 이 새벽에…≫라고 할 뿐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그를 측은한 눈매로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가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일 제1부수상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부터 혁명해온 혁명의 원로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받드는데서 1번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늘 김일 동무는 내 오른팔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늙었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에서 김일 제1부수상동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달리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너무 낮추지 말아주십시오…≫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데 있습니까.

이렇듯 장군님께서는 숭고한 혁명적 의리심을 지니시고 항일의 노투사들과 6.25전쟁에 참가한 노병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들과 노력혁신자들, 천리마운동선구자들을 내세우시고 온갖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어 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죽어서도 영생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위해 용감히 싸우는 우리 이남 겨레들에게도 숭고한 혁명적 의리를 표시해주고 계십니다.

1980년 설날에 있은 일입니다.

신년경하의 이 아침,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장내에 들어서시자 환영곡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그 환영곡의 주악을 중지시키시고 지휘자에게 추도곡을 울리라고 지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설명절이지만 희생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위하여 환영곡 대신에 추도곡을 울립시다.≫

말씀은 천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모두의 가슴에 안겨왔습니다. 연주가들과 모임참석자들은 뜨거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휘자도 들먹이는 어깨를 자제하며 지휘봉을 들었고 악사들도 눈물을 머금고 악가를 다시 들었습니다.

추도곡의 비장한 선율이 울렸습니다.

산에 나는 까마귀야
시체 보고 울지 말아
몸은 비록 죽었으나
혁명정신 살아있다

장군님께서는 선자리에서 움직일줄 모르시고 관현악의 선율에 맞춤어 추도가를 부르셨습니다.

설명절의 그 뜻깊은 자리에서 환영곡이 아니라 추도곡을 울리게 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이남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민중을 생각하시는 그분의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고매한 은정에 목메어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추연히 서시어 추도가를 부르시는 장군님의 눈가에도 뜨거운 이슬이 방울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군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넋과 애국적 희생을 잊지 않으시고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는 분이 장군님이십니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도덕의리의 최고성인이십니다.

송시

모란봉기슭에서

창문을 열면 꽃향기 흘러들고
추녁은 을밀대가 가슴에 안겨온다
바로 저 밑이로구나
개선하신 장군님 우러러 내 만세소리 외치던 곳이
그곳이구나, 대조선의 청년으로 참된 내 삶이 시작된 곳이

소실적부터 네 품에 자랐으니
내 발자국 어디인들 없으랴
경상골과 칠성문, 청류정과 최승대
오늘도 이 길을 걸으면 즐거운 나이다

대동강 모란봉만이 그대로일뿐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진 곳
높이 솟은 개선문, **김일성**경기장
창문마다 기쁨넘친 주체거리

귀기울이면 들려오는 듯
개선유희장 아이들의 노래소리
능나다리 거니는 청춘들의 웃음소리
저 경기장의 터질 듯 한 함성
너는 진정 행복의 교향곡을 울리는 민중의 낙원

좋구나 금릉동굴 황홀경에 취해
동쪽으로 나서면 묽맑은 대동강
서쪽으로 나서면 버들푸른 보통강
어디를 보나 산세좋은 절경

서쪽의 내 일터 모란봉극장에서
혁명가극 청춘화원을 만들어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신 그 날에
너의 그 진리, 내 더욱 천리로 깨달았더라

그래서 아니냐
너는 꿈을 키워 여름만이 아닌 청춘의 꽃 피워준
화원만이 아닌 내 삶을 빛내어준
은덕의 땅이
아- 내 사랑 모란봉기슭이여

흠모

김정일비서는 새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성원들의 좌담회가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지난해 4월 **김일성**주석의 탄생 80돌에 즈음하여 일본 도쿄에서 현시대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국제토론회가 일본에서 개최된 것은 현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은 주체사상밖에 없다는 것을 내외에 널리 선포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주체사상연구 보급활동이 어느 때보다 확대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고 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비서의 고전적 노작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라끼 도요히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비서는 새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이시다. 나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시는 선구자로서의 비서의 사상이론활동을 적극 따라 배워 나갈 것이며 이는 오늘 날 시대적 요구로 되고 있다.

니시무라 다쯔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비서의 사상이론은 조선인민 뿐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이다. 그이의 위대성, 고매한 덕성을 광범한 일본인민들에게 널리 소개 선전해 나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성원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일본의 자주화를 위하여 서로 노력해 나가자.

좌담회참가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좌담회에는 **김일성**주의연구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오끼다 요시하루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오끼다 요시하루는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할수록 탁월한 사상이론가로서의 **김정일**비서의 위대성을 절감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주체사상이 창시된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나는 그것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어 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인민이 그 사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혁명실천에 구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그후 김정일비서가 그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세상에 발표하였다.≫

주체사상은 심원한 사상이며 이를 체계화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일**비서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주석의 회고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이며 현시대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신 **김정일**비서의 업적은 위대한 것이다.

지난 해 **김정일**비서께서 발표하신 역사적 문헌들인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 노선≫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통해서도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비서께서는 문헌들에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을 정확히 밝히시고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길에서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명철하게 천명하시였다.

나는 이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부정부패의 왕초 이회창을 매장하자

이회창의 부정비리행위가 꼬리를 물고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의 아들의 주가조작공모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회창의 장남 정연은 지난 2000년 8월 재벌2세들과 공모하여 W사라는 빈껍데기회사를 유망벤처기업으로 포장한뒤 모제약회사로 하여금 인수케 하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기행위를 자행했다.

이들은 모제약이 전환사채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원격의료업체인 W사를 인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다음 창업투자전문회사인 T사를 내세워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하고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모제약주식을 차명으로 대량 매입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하여 2000년 8월초 당시 4천몇백원에 불과하던 모제약의 주가가 한달여만에 4만원으로 열배정도 폭등하자 정연과 재벌2세들은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액을 남겼다. 그리고 T사로부터 매입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해 4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검은 돈을 챙겼다.

참으로 정연이 자행한 주가조작공모행위는 그 수법과 교활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하긴 부정비리만 일삼아온 썩은 개쪽의 품에서 구린내나는 2세가 나오지 않으면 무엇이 나오겠는가.

정연의 애비 이회창은 검은 돈으로 제배를 불려온 도둑왕초이다.

이회창이 법관의 모자를 쓰고 저지른 부정비리행위는 제쳐놓고라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때부터 계산을 해도 부정부패왕초의 감투를 쓰기에는 충분하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안기부자금횡령사건≫과 97년 ≪대선자금불법횡령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이회창은 지난 96년 4.11총선시 선대위위원장을 하면서 안기부가 국가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900억원을 조성해 이중 500억원을 신한국당 총선자금으로 쓰면서 수백억원의 검은 돈을 챙겼다. 그리고 다음해인 97년 대선때에는 불법적으로 모은 대선자금 236억7000만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10억여원을 집어삼키고 검찰수사를 흐지부지해 버리도록 강요하였다.

돈에 환장이 된 이회창은 그것도 만족하지 않아 아들 정연이를 주가조작사기행위에로 부추기는 한편 재벌2세들에게 제놈이 집권하면 뒤를 봐준다는 약속아래 900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빨아내어 제놈에게 갖다 바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은 검은돈으로 이회창은 친일역적인 제 애비의 생가를 2억원이나 들여 복원했는가 하면 월세 1000만원씩이나 하는 105평짜리 호화주택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들 정연이를 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희세의 친미친일사대매국노인 동시에 부정부패의 원흉, 썩은 개쪽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의 힘으로 부정비리의 칼날을 횡포하게 휘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고 이 땅의 경제는 회생불능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국민은 문민독재자인 김영삼과 그 아들 현철이가 저지른 ≪한보부정비리사건≫이 어떻게 이 땅의 경제를 거덜내고 아이엠에프의 경제신탁통치를 몰아왔는가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만일 썩은 개쪽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제2의 아이엠에프 경제신탁통치에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부정비리왕초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한다.

청년학생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은 이회창이 저지른 친미친일매국행위들을 집중적으로 폭로선전하는 것과 함께 역도가 저지른 온갖 부정비리행위들을 낱낱이 발가내어 반이회창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쟁취투쟁을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도록 하는데서 선도자적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가와 공단가, 농어촌과 성당 등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이 더 거세게 타번지게 해야 한다.

이제 이회창역적이 발붙이고 편안히 숨쉬고 있을 자리는 이 땅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백만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과감한 투쟁으로 이 땅의 반이회창열풍을 몰아올 것이며 민족의 역적, 부정부패의 왕초 이회창을 기어이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넣을 것이다.

≪부정부패의 왕초 이회창을 매장하자≫ 한양대학교 학생 김철홍씨의 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이회창은 호화주택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행위가 폭로되자 더더욱 궁지에 몰려 있는데요. 이로부터 이회창은 국민에게 사과한다느니 주택을 옮기겠다느니 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보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도둑왕초, 썩은 개쪽으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회창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3일~4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4월 4일

≪F-15K≫기 선정에 대한 반대여론과 저항 거세

차기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K≫기가 사실상 정해진뒤데 대해 반대여론과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대표들은 지난 주말 국회를 방문해 군부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는 등 큰 의혹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은채 차기 전투기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도 평가기준을 미국 보잉사의 ≪F-15K≫기에 유리하도록 변경하지는 않았는지, 이 과정에 부당한 압력행사는 없었는지 그리고 차기 전투기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을 가려야 한다며 1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인식전환 긴급여론조사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반미기운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최근 여론조사기관이 주간잡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전지역에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총련의 반미투쟁방식에 동감하는 지지율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미국과 한국의 일부 보수세력이 학생들의 미상공회의소점거투쟁을 테러사건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의 운동방식에 공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의 책임연구원은 시민들속에서 지지계층이 늘어난 것은 충격의 ***,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결과 미국에 대한 인식전환은 일반 시민들속에서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미국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해서는 60%이상이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대답함으로써 이것은 지난 2월에 비해 더욱 높아졌습니다.

언론들은 지금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역사의 진실은 미국의 모습을 더 추악한 모습으로 덧칠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을 타도하자 각계의 목소리

각계에서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미국의 충견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타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의 한 회원이 최근 한나라당이 꾸며낸 이른바 ≪대북기본노선≫은 극악한 반북대결선언이라고 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강력한 규탄과 배척을 받고 있는 이회창일당은 부시집단에 빌붙어 집권해보려는 술책에 매달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은 이북을 고립압살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이회창은 상전의 지시를 받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충견이다. 그는 부시의 ≪악의 축≫발언과 대북적대시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민족의 분열을 지속시키기 위해 갖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회창은 민족을 배반하고 오직 일신의 안락을 위한 대권욕을 채우기 위해 돌아치는 정치간상배에 불과하다. 이런 놈을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가는 우리 국민은 물론 온 민족이 엄청난 화를 당할 수 있다. 더늦기 전에 이회창일당을 타도해야 한다.≫

경기 통일연대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은 반북대결선언, 반통일선언이라고 낙인찍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민족이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이회창패거리들이 반북대결노선을 꾸며낸 것은 민족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미국 상전의 충견이 돼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반대하는 이회창일당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이다. 부시와 이회창일당때문에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전쟁국면에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회창일당을 제거하고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한다.≫

발전소민영화움직임을 보이면 다시 총파업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전소민영화움직임을 보일 경우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2일 발전노조파업을 타결지으면서 정부와 합의한 합의문 가운데 발전소민영화교섭의 논의대상제외문구가 민영화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일 합의문이 조합원들의 대량해고와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발전소민영화논의를 일단 유보하자는데 합의한 것이며 노조가 민영화에 합의했다는 정부의 해석은 아전인수격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만약 발전소매각일정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그 저의

이 땅에 또 한차례의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온 대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시간엔 이번에 진행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미국과 군부호전세력이 지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휴전후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였는데요. 이번 훈련은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한국행각을 한 후에 벌어진 것으로해서 특별히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 함께 했습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미국과 군부호전집단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종전에 진행하던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하여 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벌였는데요. 이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본토, 일본, 괌도 등의 수만명의 미군무력과 한국군 근 70만의 참가하에 광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은 말그대로 총포성이 작열하는 전장을 방불케했죠.

사회자 : 그런데 말이죠, 한미측은 이번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구차스러운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규 : 이번 훈련의 목적이 지휘부의 의사결정능력을 높이고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데 있다는 것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주장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방어용 훈련이라는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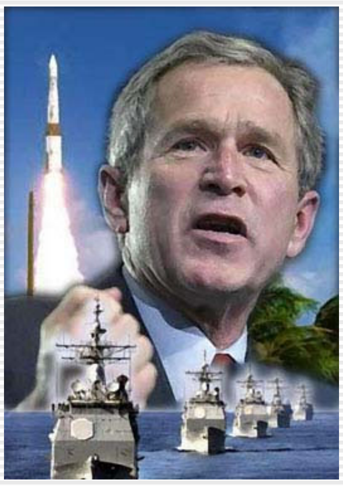
사회자 :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철면피한 주장이 아닐 수 없군요. 내외여론은 이번 군사훈련과 관련해 북침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김현규 : 우리 민중과 세계 여론이 일치하게 확언하는 것처럼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대고 한국행각을 벌였으며 이북을 핵공격대상으로 삼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한 것으로써 이북을 겨냥한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는 건 더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이미 북침전쟁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이제 남은 것이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뿐입니다. 이번 통합군사훈련이 바로 그 서막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통합군사훈련이 규모에 있어서 지난 50여년간 있어본 적이 없는 대규모였다는 것, 서울 이남지역에서 벌어지던 훈련이 서울 이북지역인 군사분리선상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핵선제공격을 노린 훈련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론과 우리 민중이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사회자 : 이번 통합군사훈련이야말로 6.15공동선언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은 반통일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군부호전세력이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적인 북침통합군사훈련을 벌인



것은 6.15공동선언에 배치되는 행위로써 이북과 대결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으로 됩니다.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통할 수 없게 되었죠.

또 미국이 떠드는 북과의 대화니 뭐니 하는 것이 완전한 거짓이고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여전히 달가와하지 않고 있으며 속셈은 이북을 힘으로 압살하려는데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에 대해 똑바로 알고 미국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우리 땅을, 아니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핵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반미반전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키고 삶의 터전도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남과 북이 대결할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공조하고 단결해서 이 땅에서 외세의 전쟁책동을 짓부수고 평화를 수호하며 나아가서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죠. 그럴 때 민족번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세계전쟁사를 보면 군사훈련이 그대로 실전으로 넘어간 사례들이 많은데 미군이 이 땅에서 벌이는 군사훈련이 그대로 이 땅에 핵전쟁을 몰아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경각심을 높여서 다시는 이 땅에 북침을 위한 군사훈련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일~4일

외세의존은 반민족행위

외세의존은 큰 나라를 섬기고 그에 의존하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내맡기는 민족반역행위이다.

나라와 민족문제해결에서 주체성을 잃고 외세에 의존하면 자기 민족이 아니라 외세의 의사를 따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민족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종당에는 민족의 운명을 망쳐먹고 만다. 이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사대와 외세의존의 반민족성과 그로인한 재난과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해 오는 민족이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은 일제식민지노예살이도, 오늘 미국의 식민지예속과 민족분열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사대와 외세의존이 빚어낸 악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를 대아시아전략실현의 거점으로 계속 거머쥘 야망밑에 이 땅을 가로타고 앉아 통일문제에 대한 간섭과 방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민족자주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말살하기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미국을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에 의존하고 아부굴종하는 것은 결국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반민중적, 반민족적인 반역행위이다.

지금 이 땅은 민족자주세력과 외세의존세력간의 치열한 대결장으로 되고 있다.

민족자주세력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고 자주권을 되찾으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모든 것을 이룩해 나갈 것을 요구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외세의존세력은 민의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미, 일에 아부굴종하며 민중과 겨레의 운명을 공멸에로 몰아가는 민족반역의 가도로 질주하고 있다.

바로 사대와 외세의존에 물젖은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은 저들의 기득권유지와 대권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동족보다도 외세를 더 중시하면서 미국의 반북압살책동에 적극 공조해 나서고 있다.

얼마전 방미행각시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은 미국상전들 앞에서 ≪북은 변한 것이 없다≫느니, 그 누구의 ≪핵개발에 대비≫해야 한다느니, ≪통일후에도 미군의 한국주둔이 필요≫하다느니 하고 떠들다 못해 자기가 집권하면 이북에 ≪비무장지대에서의 북의 병력후퇴배치, 재래식무기감축≫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망발까지 늘어 놓았다.

심지어 온 민족과 세계를 경악케한 호전광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적극 지지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또한 지난 2월21일 부시의 방한시 민족공멸망발에 쌍수로 환영한 이회창은 상전이 돌아가기 바쁘게 그 무슨 총재단회의를 열고 ≪한미가 상호이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느니,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느니 하며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에 합세해 나서는 반민족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일본을 행각해서는 한, 미, 일 공조를 떠벌이며 북의 그 무슨 ≪대량살상무기해체≫에 대해 고아댔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고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세력이 외국행각을 하면서까지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짓밟고 화합과 단결의 상대인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침략적이고 반통일적인 외세에 아부굴종한 것은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다.

화해의 손을 내미는 동족을 배척하고 외세의존에 광분하는 극우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인해 지금 남북사이에는 대결과 긴장이 격화되고 있으며 통일문제해결에 더욱더 복잡한 난관이 조성되는 비극적 현실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극우반통일세력이 집권하면 나라의 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명백하며 우리 민중은 2중3중의 노예적 예속과 핵전쟁의 재난을 입게 될 것이다

민족주체성을 상실한 외세의존세력,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반민족, 반통일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 민주,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반세기이상의 한국사가 보여준 피의 교훈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일치단결하여 자주, 민주, 통일에 가장 위태로운 외세의존사상과 친미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전민중적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조수정 – 구국전선
주체91, 4월 1일

이른바 ≪생활안정운운≫은 국민기만이다

지금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속에서 경제회생이니 생활안정이니 하는 말들이 경쟁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런 사람들속에 엉망이 되어 가는 민생문제를 두고 진심으로 안타까와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는가 하는 겁니다. 모두가 민심을 낚아보자는, 그래서 지지표를 얻어보려는 전시용에 불과합니다.

노동운동가 김경수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씨입니다. ≪이른바 ≪생활안정운운≫은 국민기만이다≫.

지금 정치권은 다가오는 월드컵경기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 지방 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상생이 아닌 상살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간의 꼬집기와 흠집내기, 헐뜯기로 극에서 극으로 치닫고 있으며 모순과 갈등의 도가니속에서 끓고 있다.

서로의 엇갈린 주장을 내들고 상대방을 공격하며 난동까지 부리는 통에 정치의 장이라고 하는 국회가 공전과 파행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판국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추구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속에서 정치인들은 경제회생이니 생활안정이니 하며 마치 제가 권좌에 오르면 민생을 구제하기라도 할 것처럼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 하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등지고 민생을 외면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예외없이 국민의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고들 한다.

그러면 과연 현실은 어떠한가. 참정치는 실종되고 세비만 올려 받아먹고 제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은 불안속에서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경우를 보자.

미국이 강요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실업자대군이 거리를 떠돌며 특히 10대, 20대 청소년실업자들, 대학졸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느라고 시내를 방황하고 있다.

더욱이 10대, 20대 실업자들속에서 산생된 2인조, 3인조강도단이 대낮에 은행직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거액의 돈을 강탈하고 길가던 주민을 상대로 금품을 약탈하며 살해하는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으니 사회의 불안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최근 서울 중랑구 상봉동 한빛은행 중랑지점에 3인조강도단이 침입해 흉기로 은행직원을 위협하여 현금 100여만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난 것이라든가 충남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에서 3인조강도단이 농협직원을 위협해 현금 2억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난 것은 그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실업자뿐 아니라 노숙자문제 역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숙자들이 지하철역과 역대합실 등 곳곳에서 욱실거려도 누가 하나 거들떠보지 않으며 아무런 대책도 없다. 극히 줄여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거리에서만도 각종 질병에 걸려 숨지는 노숙자가 한해 평균 400여명에 달하고 있으니 노숙자가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아도 과시 짐작할 수 있다.

노숙자들은 삼간초가에서나마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더라도 생활의 안정을 누리며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다. 자기 몸 하나 담을데 없는 노숙자들의 가긍한 처지에 비해 볼 때 월세 1000만원짜리 호화주책 2채를 임대해 호의호식하며 흥청거리는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사치한 생활, 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너무나 판이하고 상반되는 생활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회창은 말끝마다 민생구제니 생활안정이니 하며 마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것처럼 너스레를 늘어놓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이회창과 같은 자들의 사탕발림의 국민기만의 요설이다.

또한 노점상 상인들의 경우를 보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에도 벅차다는 노점상들에게 있어서 생활안정이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노점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이고 운명이라고 할만큼 더없이 귀중한 것이다.

그런데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강남, 종로 등지의 노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의 철거, 무차별적인 단속을 강행하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민생구제가 있고 생활안정이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이 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해괴망측한 모습이며 이 땅의 정치인들에 의해 구상되고 시행되는 작태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생활고를 비관한 주민들의 자살사건과 살해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빚독촉에 못이겨 자살하고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자살하는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등 자살과 살인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그 사례를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 양상과 유형도 천차만별이니 국제사회계가 한국을 가리켜 자살왕국이라고 지탄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오늘 절대다수의 근로민중은 불안과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해가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안정이란 한갖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예로부터 경국제민이라는 말이 있다. 말하자면 나라가 힘을 넣어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민생문제, 생활안정은 현대정치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문제, 생활안정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양대 행사, 양대 선거에만 급급하고 차기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당략에만 고심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떠들어대는 민생구제니 생활안정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생구제, 생활안정 이것은 기만과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들의 추악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정치인들의 선정용 광고일 뿐이다.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그런 정치인들은 민중의 버림을 받기 마련이다. 정치인들은 민생문제를 가지고 민중을 희롱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유일한 미국의 식민지사회이고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이며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겠다는 것과 같은 허황한 수작이고 잠꼬대같은 소리이다.

이같은 식민지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생문제해결의 기본열쇠는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그 기본역량은 근로민중의 단합된 힘에 있다. 근로민중은 사회와 역사발전의 주체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런만큼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데서 주체는 다름아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 근로민중이다.

이 땅의 근로민중은 사이비정치인들의 생활안정광고에 속지말고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확고한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이 땅의 근로민중은 민생을 위한 투쟁이 곧 인간의 기본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직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이 투쟁에 헌신해야 할줄로 믿는다.

우리 민중들은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공약에 속을 대로 속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중들은 조국통일도 민생도 안중에 없이 집권욕을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다하는 정치간상배들에겐 절대로 찍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일~4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4월 3-4일

김용순비서와 김대중대통령 특사 회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와 남측의 요청에 따라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의 특사인 림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 사이의 회담이 3일에 있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폭넓게 토의하였다.

우리측은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여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안팎의 호전세력의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악화되고 북남공동선언리행이 엄중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언급한 다음 이에 대한 책임이 미국과 함께 남측에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이번에 우리가 림동원특사의 평양방문요청을 수락한것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직접 마주 앉아 남측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 나갈데 대한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민족끼리 공조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들어 보려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남측이 력사적인 평양상봉때 ≪주적론≫이라는것이 더는 없을것이라고 하고도 계속 그것을 제창하면서 전쟁소동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엄중시하고 6.15공동선언리행에 대한 근본립장부터 바꿀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담은 계속된다.

미국은 금강산관광방해책동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책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를 ≪악의 축≫이라고 떠벌인데 이어 ≪핵무기사용대상국가≫로 지정한 후 전례 없는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고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의회조사국은 미의회에 제출한 ≪한미관계보고서≫라는데서 우리가 금강산관광비를 군사용으로 ≪전용≫했다느니, 현대가 우리에게 비밀자금을 제공한것으로 믿고 있다느니 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새로운 모략소동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제놈들의 기도를 합리화하고 그로 하여 더욱 고조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눅잦히며 남조선에 압력을 가하여 더 많은 무기를 팔아 먹으려는 음흉한 속심에서 출발한것이다.

그것은 또한 북과 남사이의 협력의 상징으로 되여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을 파탄시켜 북남관계를 다시 되돌려 세우려는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미국의 부쉬패거리들은 정권의 자리에 올라 앉은 첫시기부터 금강산관광사업을 파탄시켜 보려고 여러가지로 책동하여 왔다.

부쉬패거리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군부와 모략의 총본산인 정보계통까지 내세워 우리가 금강산관광대가를 군사적목적에 쓴다고 하면서 관광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남조선에 압력을 가하였다.

이와 함께 미행정부는 남조선의 야당과 우익보수세력들을 발동하여 금강산관광을 방해해 나서도록 적극 부추겨 댔다.

이리하여 현대아산으로 하여금 지난해 2월부터는 우리와 합의한 관광대가를 제대로 지불할수 없게 만들었으며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던 여러 회사들이 손을 떼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민족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속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처럼 저조해 진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권모술수와 모략책동때문이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하는 교류와 협력사업은 물론 조국통일도 방해해 나서고 있는 가장 극악한 민족의 철천지원쑤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가 이미 여러번 천명하였지만 미국이 지금과 같이 북남사이의 민간급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계속 책동한다면 우리 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을 가져 올것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더 큰 항의와 규탄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미국은 이제라도 금강산관광방해책동을 당장 걷어 치우고 리성을 가지고 분별 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태도를 주시할것이다.

주체91(2002)년 4월 4일 평 양

미행정부가 우리의 합의문리행을 ≪보증≫하지 않기로 한 문제에 언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행정부가 우리의 조미기본합의문리행을 ≪보증≫하지 않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행정부는 우리의 조미기본합의문리행을 올해에는 국회에 ≪보증≫하지 않을것이라고 한다.

물론 미행정부가 국회에 ≪보증≫을 하고 안하고 하는것은 그들 내부문제로서 우리가 상관할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여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있는 우리의 영상을 훼손시킬수 있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조미합의문을 미국측 저들만이 리행하고 있는것처럼 허위날조하려는데 대하여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날수 없다.

즉 미행정부는 저들은 합의문을 지키고 마치도 우리가 조미기본합의문을 리행하지 않고 있는듯이 보증을 하겠소, 안하겠소 하면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합의문에서 지닌 의무대로 우리의 핵시설들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원들의 항시적인 감시도 허용하고 있다. 조미기본합의문을 실제적으로 리행하지 않고 있는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경수로제공을 대폭 지연시키고 중유납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경수로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올해분 중유가 제때에 납입되게 하는것은 미국측의 엄연한 의무이다. 만약 이러한 대책들이 강구되지 않는 경우 우리의 해당 조치가 있게 될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김일성**전집≫ 제41, 42권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김일성**전집≫ 제41, 42권을 출판하였다.

전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년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한 주체사상의 총서이다.

제41권에는 주석께서 주체57(1968)년 6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하신 보고와 결론, 연설, 담화 등 20건의 로작들이, 제42권에는 그이께서 주체57(1968)년 10월부터 주체58(1969)년 2월까지의 기간에 하신 연설과 결론, 담화 등 19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김일성**전집≫ 제41, 42권에는 주석께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당사업과 국가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놓으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침들이 집대성되여 있다.

그 가운데에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풀어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평안남도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로작들이 들어 있다.

전집들에는 이밖에도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의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질데 대한 문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모든 재일조선동포들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혁명위업의 전반적승리를 위한 투쟁과업들이 제시되여 있다.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 도착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이 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축전조직위원회 장철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인 문화성 송석환부상, 평양시인민위원회 조영화부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일행을 맞이하였다.

전국주체사상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이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맞이 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전국주체사상토론회가 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정하철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일성**고급당학교 제1부교장 교수 리창화, 사회과학원원장 교수, 박사 태형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박사 김춘근, 민주조선사 부주필 한내철, 로동신문사 부주필 로영, 조선로동당출판사 부사장 박승백, **김일성**정치대학 학장 교수, 박사 차경일,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로배권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고 이를 혁명실천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20세기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해설하고 론증하였다.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생활기풍을 활짝 꽃 피우자 (2)

로동신문 론설 - 주체91, 4월 3일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격동적인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 있다.

인민군대의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 도덕이 사회에 차고 넘쳐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나고 있다. 인민군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과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 있는 혁명적동지애와 고상한 도덕생활기풍이 전 사회적인 풍모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혁명적인 사상과 투쟁기풍과 함께 고상한 사회주의도덕이 온 사회에 꽉 차넘치는 사회이다. 우리 당은 지금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사람들의 도덕생활분야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사상과 도덕의 위력으로 제국주의를 압도하고 이 땅우에 사랑과 충성, 숭고한 의리와 화목이 꽃 펴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우리 사회의 정신도덕적풍모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 세워야 한다.

현 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우리 사회의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더욱 활짝 꽃 피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운명의 수호자, 삶의 태양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고 받드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이며 그것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 세기 진군길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천만시련을 넘고 헤쳐 오는 나날에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고 죽어도 전사의 의리를 저버릴수 없다는것을 확고한 신념과 량심으로 간직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자나깨나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그리며 선군혁명의 길에 순결한 충정을 바쳐 가고 있다. 자기의 신념과 량심으로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준엄한 날에나 평범한 날에나 오직 장군님만을 그리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 원쑤들은 전률하고 있다.

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선군시대의 참다운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때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은 천백배로 강화되게 될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사회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더욱 활짝 꽃 피우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인민군군인들이 창조한 사상과 정신, 도덕을 체질화한 새형의 인간들이 태여나는 보람찬 시대이다. 위험에 처한 혁명동지를 생명을 바쳐 구원하고 부모 잃은 아이들의 친부모,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여 주며 자기를 배워 주고 내세워 준 스승들을 잊지 않고 존대하는 아름다운 소행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에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가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라 서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전체 인민이 한가정, 한식솔이 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시련과 난관도 함께 헤치는 우리 사회의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은 극단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온갖 낡고 썩어 빠진 부르죠아도덕이 우리 사회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하고 선군시대에 맞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꽃 피울 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될것이다.

우리는 이제 멀지 않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뜻 깊게 맞이하게 된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혁명하는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수령님의 아들딸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 싸워 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교양 사업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자기 수령께 충성과 의리를 다하는 **김일성**민족의 고결한 정신도덕적풍모가 더욱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도덕관을 적극 따라 배우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려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완전무결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는 공산주의도덕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빛나는 귀감으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고 있다.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전사들의 정치적생명과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 주시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적도덕의리는 이 땅우에 고상한 도덕의리가 꽃 피는 새 사회를 일떠세우게 한 원천으로 되고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따라 배워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비롯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깊이 학습하고 장군님께서 지니신 순결한 도덕의리를 체득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을 받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따라 배우고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도덕의 사상적기초이다. 우리는 도덕교양을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 쥐고 심도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닐수 있고 사상은 량심화, 도덕화되여야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동지애를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

오늘 인민군대에서는 터지는 수류탄을 한몸으로 막아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지켜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 드는 영웅적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친동생과 같이 사랑하고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맏형, 맏누이와 같이 존경하고 따르는 상하일치, 관병일치는 우리 군대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 고상한 도덕기풍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전우애를 지닌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의 높이에 자신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사회주의도덕규범의 요구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누가 보건말건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사회공동생활의 모든 면에서 공중질서와 례의도덕을 자각적으로 지켜 나가는 사람이 참된 인간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하루를 살아도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겠다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사회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과 질서를 옳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웃사람을 존경하고 스승과 선배들을 존대하는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며 늙은이들과 어린이, 녀성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따뜻이 돌봐 주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는데 계속 큰 주목을 돌려야 한다. 가정생활과정에 맺어 지는 부부사이, 부모와 자식사이, 형제자매사이의 육친적인 사랑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이 참다운 동지적사랑으로 이어 지도록 교양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전도는 청년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 달려 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안고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나 오늘에나 조국의 부강을 위해 청춘의 피와 땀을 서슴없이 바치고 영예군인들과 기꺼이 한생을 같이 하며 조국보위의 최전연초소에로 앞을 다투어 달려 나가는 순박하고 성실하고 용감한 청년들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다.

당조직들은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들고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며 아름답고 건전한 정신도덕적품성을 지닌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나도록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혁명의 전 세대들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당과 수령을 어떻게 받들었으며 혁명의 난국을 뚫고 나가는 길에서 어떻게 살며 투쟁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려 주어야 한다. 리수복영웅과 같이 스승을 존경하며 고향땅을 귀중히 여길줄 아는 사람이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결사전에서 육탄, 자폭용사가 될수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총포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내부에 썩어 빠진 부르죠아 도덕과 생활양식을 퍼뜨리려고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사소한 비사회주의적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고상한 례의범절과 풍습, 생활양식을 살려나가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모범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그 어떤 안락과 보수도 바람이 없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 있는 공산주의적미풍을 적극 내세우고 널리 소개선전하며 그 모범을 따라 배우는 사업을 전 사회적운동으로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사상과 신념의 승리인 동시에 혁명적도덕의 승리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도덕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끝)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4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4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시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숭고한 인덕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보았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사상, 영도, 덕망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실 뿐아니라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이십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이시라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혁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 가장 신성하고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혁명의 수령, 혁명의 영도자는 혁명의 뇌수입니다. 따라서 혁명의 영도자에게 있어서 고결하고 위대한 혁명가의 풍모를 지니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이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찍이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오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가의 첫째가는 풍모입니다. 혁명가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해서 결사의 각오를 안고 혁명의 길에 나선 것만큼 혁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는 끝없는 충실성을 지녀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근 70성상을 하루와 같이 혁명에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바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면서도 한 순간의 동요나 비관을 모르고 꿋꿋이 혁명의 길을 걸어오셨고 한평생을 혁명을 위하여 바쳐오시면서도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때 한번 돌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팔순이 넘는 고령의 몸이시지만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왕성한 사업의욕으로 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무엇보다도 혁명을 위해서 일신의 모든 것을 다바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이셨습니다. 혁명가의 첫째가는 징표도, 첫째가는 미덕도 혁명투쟁의 대하속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며 혁명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바치는데 있습니다. 혁명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여기에 혁명가의 자격도 있고 삶의 보람과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신의 모든 것을 오로지 혁명을 위해서 다 바쳐오셨습니다. 가정도 청춘도 포부와 이상도 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결부시키시고 오직 조국광복을 위해서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생애는 실로 그 어떤 위인도 창조할 수 없는 위대한 혁명가의 역사입니다. 가정은 그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들이라면 부모에게 효성하고 혈육들 사이에 사랑을 나누어야 할 명분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새 신발을 사서 신으라고 어머님께서 주신 그 돈으로 자신은 짚신을 신으시고 고생하시는 어머님께 고무신을 사드리셨다는 일화까지 남기신 효성이 지극하고 남달리 인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에게 있어서 한가정의 아들이라는 자각은 그 누구보다도 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는 부모님들에 대한 효성과 혈육들에 대한 사랑 위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올려놓으시고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존경하는 부모님들도 이국의 거치른 산야에 묻으시고 사랑하는 동생들과 생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 모진 슬픔과 괴로움도 혁명을 위해서 고스란히 묻어두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도 괴로움도 다 이겨내시고 결연히 혁명의 길에 나서셨고 갓 창건된 항일유격대를 이끄시고 남만 원정을 하시느라 어머님의 임종도 지켜드리지 못하셨으며 어머님을 잃은 다음 가장이 되어야 할 처지에서도 갈대만 처량하게 설렁이는 들판에서 설움에 우는 두 동생을 남겨두신 채 기약할 수 없는 혁명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은 온 가정을 혁명을 위해 다 바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포부와 이상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에 두시고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향학열에 불타고 진취성이 강하며 꿈이 많던 청소년 시절에 나라와 인민을 위한 혁명의 길에 결연히 뛰어드셨으며 조선혁명을 자신의 원대한 포부와 이상으로 내세우셨습니다. 1930년대에 국제당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께 모스크바 유학을 권고했습니다. 국제당 연락원은 위대한 수령님께 ≪당신은 전도가 양양한 사람인데 실천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가 들어있는 트렁크까지 열어 보였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혁명에 뜻을 둔 사람들 속에서는 쏘련 유학바람이 불고 있던 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당 연락원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관심을 돌려주어 대단히 고맙지만 나는 동만에 남아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맑스-레닌주의는 책을 보고 공부할 작정이라고 대답하시며 모스크바 유학을 사양하셨습니다. 유리한 조건에서 혁명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혈전의 마당에 몸을 잠그신 이것은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하루빨리 구원하고 조국광복위업을 앞당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혁명관의 발현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혁명을 위해서라면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인류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아슬아슬한 시련의 고비들에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위험천만한 일에 결연히 뛰어들곤 하셨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시기 그처럼 엄중한 난국도 다 자신의 한몸으로 타개하셨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은 한평생 그 어떤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혁명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으시며 사선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시면서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 오신 위대한 혁명가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고 오시면서 조국과 혁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혁명의 끊임없는 앙양을 위해서 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정력적으로 투쟁하여 오신 위대한 혁명가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다음으로 혁명을 위해서 순간의 쉼도 없이 정력적으로 혁명투쟁을 벌리신 위대한 혁명가이셨습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순간의 쉼도 없는 정력적이고도 열정적인 투쟁의 나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항일전에 나서시여 20성상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피어린 전투와 간고한 행군의 수십만리 길을 끊임없이 헤쳐오셨으며 조국을 광복하신 다음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억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게 있어서는 일요일도 명절날도 지어 생신날도 따로 없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잠시나마 휴식하실 것을 간청하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게 항일의 나날에는 조국이 광복된 다음 푹 쉬자고 하셨고 조국이 광복된 다음에는 인민들이 잘 살게될때 마음놓고 쉬자고 하셨으며 인민들의 생활이 펴이었을 때에는 조국의 통일된 다음에 쉬자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인민들의 기쁨을 보시는 것이 가장 큰 낙이고 휴식이라고 한평생 일밖에 모르셨습니다. 순간의 휴식도 없이 정력적으로 사업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끝없는 헌신성을 말해주는 한가지 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81(1992)년 5월 5일에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벽 5시30분에 개성시를 향해서 금수산 의사당을 출발하셨습니다. 개성까지 400여리를 가시면서 고속도로와 수십개의 굴과 다리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아침7시에 길가에서 검소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7시50분에 개성에 도착하시여 영접나온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곧 고려박물관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9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만월대를 돌아보셨습니다. 10시17분부터 10시26분까지 선죽교와 효충비를 돌아보셨습니다. 10시37분부터 11시까지 고려태조 왕건왕릉을 돌아보셨습니다. 13시55분부터 14시10분까지 개성방직공장을 돌아보셨습니다. 14시30분부터 15시까지 개풍군에 있는 공민왕릉을 돌아보셨습니다. 15시50분부터 16시30분까지 박연폭포를 돌아보셨습니다. 16시30분부터 16시50분까지 박연협동농장인삼포전을 돌아보셨습니다. 16시50분에 박연협동농장을 떠나 귀로에 오르셨습니다. 19시경에 평양에 도착하셨습니다. 20시37분에 책임서기를 찾으시여 오늘 현지지도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반영을 들으셨습니다.

건장한 젊은 사람도 하루에 자동차로 1100여리를 달리면 몹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팔순이 되신 고령의 몸으로 멀고먼 장거리를 달리셨을 뿐아니라 무려 10여시간이나 야외에서 현지지도로 보내셨습니다. 이날 쉼없이 일하신 하루 직무시간은 17시간이였습니다. 역사가 창조되고 혁명이 전진한 이런 하루하루가 이어져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이처럼 초인간적인 힘과 정력으로 한평생을 혁명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서거 100날에 즈음하여 추모회가 엄숙히 거행되던 1994년 10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가지 정력적으로 활동하다가 순직한 영도자는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 한분밖에 없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며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돌아가신 점에서도 우리 수령님은 정말 위인중의 위인이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고 오시면서 조국과 혁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혁명의 끊임없는 앙양을 위해서 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정력적으로 투쟁하여 오신 위대한 혁명가이셨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먹지말자! 맥도널드 햄버거≫ ≪잊지말자 오! 노!≫

전국 7개도시 ≪미국제품 불매운동≫ 시위

≪어떻게 안티 오노를 외치면서 미국제품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어요?≫

≪동계올림픽을 보고 난 뒤 맥도날드 햄버거는 목에 걸려 잘 안 넘어가요. 좋아했는데 이젠 잘 안 먹어요≫

≪네티즌들의 오프집회는 3차, 4차 계속됩니다. 마지막 한사람이 남더라도 말이죠≫

동계올림픽 편파판정시비를 지켜본 한국네티즌들의 분노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는 3.1절에 첫 오프 집회를 가진 대한민국네티즌연합은 4.5식목일에도 어김없이 행동전을 치뤘다. 전국 7개 지역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불매운동에 대한 홍보전을 비롯 서명운동, 거리행진 그리고 식목일인 만큼 ≪무궁화꽃씨≫를 나눠주면서 ≪오늘만큼은 애국심을 심는 날≫로 만들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경기인천서울연합 행사는 2시부터 약 100여명의 네티즌들이 종묘공원에 모여 발대식을 시작으로 거리홍보, 서명전, 무궁화 꽃씨 나눠주기를 진행한 후 4시경에 인근 탑골공원까지 행진하고서 마무리됐다. 이날 집회는 10대 청소년층이 대다수, 그리고 20대 대학생과 30대 직장인이 소수 참여했다.

≪네티즌들은 반미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편파판정시비로 땅에 떨어진 한국의 자존심회복을 위한 애국운동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네티즌연합 운영자인 최승호씨는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프집회를 계획하게 됐다며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홍보전 계획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보배(연수여고 재학 중)양은 인터넷을 통해 이 모임을 알게 됐다면 ≪김동성선수 때문에 동참하게 됐어요. 쇼트트렉 경기 후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라며 냄비근성이 아님을 몸으로 보여줄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1시부터 6시 사이에 마무리됐으며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홍보 · 서명전, 무궁화 꽃씨 나눠주기로 이어졌다. 전국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지만 광주지역에서 맥도날드 측과 사소한 마찰이 야기됐으나 곧 진정됐다. 부산지역에서는 3.1절 1차 집회에 참석한 중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동생을 데리고 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명목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의 연대는 하지 않겠다는 네티즌연합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광주에서는 광주전남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남총련) 학생 일부와 연대행사를 가졌으며, 대구는 네티즌연합 회원자격으로 10여명의 경북대생들이 동참했다.

각 지역의 행사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남광주≫

2시 150여명이 모여 조선대학교 후문에서 발대식을 가진 광주전남지역은 금남로까지 거리행진을 가진 뒤 나이키, 맥노날드, 케이에프씨 등 미국상품 판매소 앞에서 불매운동 홍보전, 서명운동, 무궁화꽃씨 등을 나눠주며 5시에 마감했다. 홍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네티즌연합소속 회원들이 상가에 ≪미국제품반대≫ 스티커를 붙여 맥도날드 측과 마찰이 일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과 연대집회를 가졌다.

현재 대한민국네티즌연합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이 전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정복(네티즌연합 광주전남지역)씨는 ≪구성원들이 10대 위주라 집회신고 등 애로사항이 있어 남총련과 연대집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은 미국제품불매운동과 더불어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F-15K 전투기구매반대 목소리까지 냈다.

≪전북지역≫

2시부터 5시까지 구 전풍백화점 사거리(객사) 빠리바케트 근처에서 집회를 가진 전주전북지역은 네티즌 회원 15명이 모여 미국제품불매운동 홍보 · 서명전을 비롯해 무궁화꽃씨를 시민들에게 나눴다.

이종태(전주전북대표)씨는 ≪상당한 시민들의 동참 속에서 이뤄졌다≫며 시민들의 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설명했다.

≪대구경북≫

80명의 회원이 모여 국채보상운동공원에서 1시 발대식을 가진 대구경북네티즌연합은 대구백화점까지 행진한 후 3시경 집회를 마무리했다. 미국제품불매운동관련 홍보 · 서명전, 무궁화꽃씨를 나눠졌다.

대구경북지역은 애초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측에서 연대제의를 해왔으나 ≪회원자격이면 가능하지만 한총련과의 연대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네티즌연합의 입장에 따라 경북대 학생 10여명이 회원자격으로 참석해 연대집회를 가졌다.

≪대전충남≫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 대전충남 네티즌집회는 네티즌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동 문화의 거리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거리 홍보 · 서명전, 무궁화꽃씨를 나눴다.

≪부산경남≫

부산대학교 근처에서 행사를 가진 부산경남네티즌들의 행사는 11시에 시작해 6시에 마무리됐다.

30여명이 모여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3.1절에 참석한 중학교 1학년생이 초등학교 5학년 동생을 데리고 와 눈길을 끌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국제품 불매에 대한 홍보 · 서명전, 무궁화꽃씨를 나눠준 이들은 오는 14일(일) 마산창동지역에서 또다시 행동전을 보일 예정이다.

≪충북지역≫

20명의 네티즌회원이 청주 성안길 철당간에 모여 1시부터 3시까지 홍보 · 서명전, 무궁화꽃씨를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선경(충북대표)씨는 ≪아직 홍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지는 못했지만 곳곳에서 미국제품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는 시민들을 만났다≫며 2명을 제외한 회원이 10대지만 충북 또한 3차, 4차의 집회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영순기자
유뉴스 2002/04/05

≪한총련 합법화 필요한가≫ 최초 공개 토론회

대학언론위 주최, 4회 대학기자 포럼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 · 한겨레) 대학언론위원회(위원장 박홍기 · 대한매일)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오는 11일 오후 6시 언론재단 12층 연수센터에서 4회 대학기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조준상 한겨레 기자, 강위원 ≪한총련 합법화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집행국장,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진현철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등이 발제와 토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12일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한총련 임시의장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며, 검찰측과도 참석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단체가 바라보는 한총련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언론보도에 대해 진단한다. 기자협회 대학언론위원회는 전국 180여 개 대학 신문사 방송사 교지 영자지 기자 및 신문방송학과 학생 30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2월 발족했다.

장세훈기자
유뉴스 2002/04/05

한-미동맹, 자주국방은 없다

디지털 미군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한국군, 아날로그 군대로 남아야 할 운명이여

≪경제 쪽도 그렇지만, 안보면에서의 미국 의존도는 더 심하지. 속된 말로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우리는 독감이 걸릴 정도라 할까. 내가 한-미연합작전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미군이 디지털 군대라면, 한국군은 아날로그 군대라고 할 수 있지.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 모든 면에서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걸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ㄱ 전 육군중장. 지금은 민간인 신분으로 옷을 갈아 입었지만 지난 10년 넘게 한-미연합작전분야에서 죽 근무해와 이 방면에서는 손꼽히는 전문가로 통한다. 한-미연합전력의 구조를 누구보다 속속들이 꿰뚫어보면서 나름대로 한국군의 나갈 길을 고민해온 그다. 그는 차기 전투기로 미 보잉사의 F-15K가 내정된 소식을 듣고 예상은 했으면서도 사뭇 착잡한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한국군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물론 자주국방이지. 가능하면 외국에서 사다 쓰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 기술로 첨단무기를 만들어 유사시를 대비하고, 필요하다면 수출도 해서 외화를 벌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지. 투자비용 조달이 문제야. 그래서 경제력을 키워야 해. 미래전에 대비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추려면 역시 나라가 잘 살고 봐야지. 그래야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자주국방할 수 있지 않겠어.≫ 과연 그럴까. 한국군이 자주 국방을 못하는 게 순전히 돈이 없기 때문일까. 한-미군사동맹이라는 강고한 성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도 말이다.

F-15K 선정은 지극히 당연?

≪자주국방≫이란 자기 나라의 국방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아래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군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내걸면서도 한-미군사동맹은 통일 뒤에도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 자주국방은 아예 포기한 듯한 뉘앙스가 더 강하다. 2000년 12월에 나온 ≪국방백서≫에서도 ≪완벽한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면서 힘에 부치는 국방력를 보완하기 위해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야 한다고 국방부는 주장한다.

이런 인식의 맥락에서 보면 미국산 F-15K 선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보인다. 지금의 한-미군사동맹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다.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남은 2차 평가에서는 △한-미연합작전 등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평화정착 등 대외관계에 끼치는 영향 따위가 최종 기종 선정을 결정한다. 한국군이 주한미군 당국이 내세우는 무기의 상호 운용성을 외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은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휘통신 · 통제 · 정보전달 · 컴퓨터시스템 등에서 상호소통이 잘 되는 미국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는 미국이 갖고 있는 조기경보기 · 정찰기 · 레이더 등은 물론 미사일 · 통신체계 등과 맞물려 연합작전을 펴야 하나 미국산 전투기가 아닌 경우 작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비단 F-15 전투기뿐이 아니다. 2조1천억원에 이르는 육군 차기 공격형 헬기(AH-X), 공군 차기 유도 무기(SAM-X) 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한국군은 아예 처음부터 미국 무기를 모델로 삼고 그에 걸맞은 전력증강 목표를 세워왔다. 무기선정 기준인 군 요구성능(ROC)도 미군 무기의 작전성능과 구성품 규격을 보고 베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군 요구 성능은 기종 결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자주국방파와 연합방위파의 대결

국방부가 차기 전투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애초부터 F-15K 외 다른 대안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음은 여러 인사들을 통해 확인된다. 무기 도입 사상 최초로 공개입찰로 진행돼 나라 안팎의 관심을 끌었지만 실상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셈이다. 국방부가 외교적 마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이 다른 전투기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은 나름대로 애국심(?)의 발로였다. 다른 나라 전투기와 경쟁을 부쳐 미국에게서 가격이나 기술이전 분야에서 유리한 양보를 이끌어내려 한 것이었다.

사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한국군이 과연 자주국방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였다. 공군은 차기 전투기 사업을 통해 첨단 항공기술을 이전받아 2015년쯤에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술 이전 정도가 야박한 미 보잉사의 F-15K가 차기 전투기로 사실상 내정됨으로써 당초 계획이 상당히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자주적인 전투기 개발이 그만큼 멀어진 셈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몇년 안에 국방부에서 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군 안에서도 ≪자주국방파≫와 한-미군사동맹을 더 강화하자는 ≪연합방위파≫가 나눠져 있다. 하지만 자주국방파라고 해서 이들이 미군의 안보우산에서 완전히 벗어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한-미군사동맹을 인정하면서 독자적인 작전수행력을 갖출 정도의 충분한 전력 확보를 꾀한다. 특히 거의 통째로 미군에 의존한 정보우산에서 먼저 벗어나고 보자는 생각이 강하다. 정보에서의 독립 없이 자주국방은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적 과제지만, 전시작전권을 틀어쥐고 있으면서 한국군의 무기체계에까지 직 ·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군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뒤 한-미간의 역할 분담론에 따라 미군은 지휘 · 통제 및 전략적 감시, 공중 및 해양방어의 주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군은 지상전력 위주로 전력을 키워왔다. 더구나 해 · 공군력은 미 증원전력에 의존한다는 방침에 따라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게 한국군 실정이다. 즉 한반도 유사시 해 · 공군력은 주로 연합전력 위주로 대응하고, 지상전력은 한국군이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왔다. 국가안보를 한-미연합방위전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미래전이 정보전과 항공력 등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는 면에서 보면 한국군이 구조적으로 아날로그 군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사실 지난 시절 한국군은 미군이 짜주는 무기구입 리스트를 금과옥조로 삼아왔다. 미국이 한-미연합작전상 필요하다고 명분을 들이대면 누구도 이를 뿌리칠 수가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90년대 초에는 전술핵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무기를 한국에 강매했다. 미국은 지난 90년부터 2000년까지 11년간 별다른 기술 이전 없이 96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한국에 팔았다. 무기장비류까지 합치면 무려 170억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이 산 한국 무기나 방산물자는 1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군수산업은 늘 한반도 긴장을 먹이로 삼아왔다.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공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느새 미제 무기들은 한국군의 손에 잔뜩 쥐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90년대 초반의 이북 핵위기, 98년의 미사일 위기 등 심심찮게 유령처럼 나타나는 전쟁위기 뒤의 무기거래 실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올 초 부시 대통령의 이북을 겨냥한 ≪악의 축≫ 발언에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이북의 핵 · 미사일 개발과 관련 기술의 수출설, 특별핵사찰 압박, 금강산관광 대가의 군사비 전용설 등에 이은 차기 전투기 결정도 한반도 긴장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적당한 수준의≫ 현대화

한미연합작전을 벌이는 주한미군.

미국은 또 가끔 ≪무기 현대화≫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무기구입을 부추기기도 한다. 사실 한국 공군력 현대화의 필요성을 애초 강조한 나라도 미국이었다. 지난 90년대 초 미국은 당시 탈냉전의 기운이 완연함에도 한국과 일본에 공군력 현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대화의 방법까지 자상하게 조언했다. 미국 군수산업체들이 만든 전투기 완제품을 사거나, 합작생산과 합작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대표적인 보기가 지금 논란이 붙은 차기 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다.

이때 일본은 물론 한국도 현대화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완제품을 사기보다는 합작을 통한 자체생산 비율을 늘리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합작개발을 배제했으며, 가급적 완제품을 구입하거나 부분적인 합작생산만을 허용하였다.

한국군은 지난 30여년간 주로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에 치중한 결과 첨단 핵심기술 분야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적당한≫ 수준의 한국군 현대화만 원하고 있다. 한국군의 급속한 무장화가 미국의 이익과 맞지 않을 뿐더러 주변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길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발사 사정거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미미사일각서를 미국이 강요해 맺은 것도 대표적인 보기다. 한-미군사동맹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한국군. 미국에게서 진정한 동맹군의 대접을 받을 날은 언제쯤일까.

임을출기자

한겨레21 제403호 (2002/04/03)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혁명전통

조선노동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 향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이다. 다음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고전적 노작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의 관련 발췌문이다.

≪오늘 10월 17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56돐이 되는 날이다.

≪ㅌ · ㄷ≫의 결성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에 있은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제시하시면서 혁명적 당창건의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었다.

. . .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7월초 카륜에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시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첫 당조직이었으며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당조직이었다.

. . .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나옴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었으며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 혁명역량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 . .

1936년 5월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당의 대중적 지반을 강화하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 . .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이처럼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그 영도 밑에 투쟁하였기 때문에 유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도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 수 있었으며 그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 나갈 수 있었다.≫

통일혁명당은 창당이래 일관되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혁명전통으로 삼았다. 다음은 통일혁명당 창당선언문의 관련 내용이다.

≪한국혁명은 **김일성**에 의해 향도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찬 전통에 뿌리박고 있으며, 혁명의 진리, 역사의 등대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해 그 진로가 역력히 명시돼 있다.≫

통일혁명당이 전화발전한 한민전의 혁명전통 또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임은 물론이다. 다음은 2000년 8월 15일 한민전 중앙위원회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올린 축하문의 일부이다.

≪8.15광복은 우리 조국과 민족 앞에 끝없이 양양한 미래를 열어놓은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20성상 항일대전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 오시였습니다.

광복된 삼천리강산에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는 속에 조국 북반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천대받고 버림받던 민중이 주인된 새 사회, 새 조선이 일어서고 찬란한 민족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 .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류사에 유례없는 수령영생위업의 새장을 펼치시어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원한 민족의 어버이,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시도록 하시었으며 주체위업완성의 초석인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백두의 혁명전통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유훈을 실현하는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주체조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혁명전통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항일혁명투쟁으로서 완전히 동일하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편집국 보도 73호)
주체 91(2002)년 4월 1일

➡

광고

영화예술론

주체62(1973)년 4월 11일

장군님께서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분야에 걸쳐서 최고경지에 도달하신 천재 중의 천재이십니다.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이론적 천재성을 예술관련 노작을 통하여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영화예술론≫과 ≪무용예술론≫, ≪건축예술론≫, ≪음악예술론≫, ≪미술론≫, ≪주체문학론≫은 그 자체로 인류예술이론사에 빛나는 불후의 노작, 불멸의 금자탑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벌써 70년대초 ≪영화예술론≫에서 불의 발견에 비유되는 종자론을 비롯하여 영화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백과전서적인 해답을 주시었습니다. 영화가 종합예술인 만큼장군님께서는 그 때 이미 모든 예술에 정통하시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수십성상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영도하시면서 예술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었으며 90년대에는 이를 각종 예술론으로 집약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집공개하는 장군님의 예술관련 노작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이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연구하면서 장군님의 위대성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장군님의 예술론은 인류예술이론발전의 최고봉에 이른 걸작 중의 걸작들입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예술론을 학습하면서 예술에 대한 안목도, 사업과 생활도 혁신하였습니다.

우리 통일여명편집국을 비롯하여 청년주체주의자들에게 이보다 중요한 교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지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예술론을 깊이 연구할 것을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4월 1일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사회계급적 기초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불멸의 고전적 노작 ≪조선노동당의 역사적 경험≫에서 당의 성격은 지도이념과 사회계급적 기초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이란 사상과 이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 조직체입이다. 당은 일정한 사회적 집단 또는 사회공동의 요구를 대변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당의 성격과 사명은 그 사회계급적 기초와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위의 노작에서 조선노동당의 사회계급적 기초를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민중으로 규정하시면서 당의 첫 강령을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실현하였으나 전국적 범위에서는 아직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노동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 당입니다. 우리 당은 노동계급의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노동계급과 함께 농민과 근로인텔리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자기대오에 널리 망라하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노동계급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모든 활동을 진행합니다.

. . .

우리는 당의 창건을 선포할 때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고 우리 나라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당의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항일혁명투쟁 시기부터 목표로 내세웠던 투쟁강령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미 우리 당의 첫 강령이 빛나게 실현되었습니다.

아직도 전국적 범위에서는 이 강령이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주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 앞에 나선 당면한 혁명임무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한편 통일혁명당은 창당시부터 일관되게 남측민중을 그 사회계급적 기초로 삼았다. 이는 통일혁명당을 계승한 한민전도 마찬가지이다.

≪통일혁명당은 그 계급적 기반과 지도이념, 투쟁목적상 일체 기성 정당정파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 형의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다. 우리 당은 사회의 기간적 역군인 노동계급과 농민을 위시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여 옹호한다.

. . .

전일적인 통일혁명당의 출현은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생활상 특기할 사변이며 한국혁명발전에서 전환점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자기 권익의 진정한 옹호자,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고, 통일단결의 확고부동한 구심점, 투쟁의 위대한 기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피압박 피착취 인민대중의 투쟁은 맹목성에서 탈피하여 정확한 방향각에 따라 전진하게 됐을 뿐 아니라, 종래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당의 통일적인 향도하에 하나와 거세찬 혁명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식민지 한국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을 밀고 나갈 동력은 노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중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지성인, 애국적 군인들과 종교인들은 물론 민족적 자주권을 지향하는 광범위한 민중이다. 여기에서 노동계급은 반미자주화투쟁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역량이고, 농민은 그의 미더운 동맹자이며, 청년학생들은 투쟁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개척하는 주력부대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한국민중의 지향과 의사의 체현자이며 애국적 전위대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작과 통혁당, 한민전의 문헌을 통하여 조선노동당의 사회계급적 기초는 전체조선민중을 포괄하며 한민전의 사회계급적 기초는 남측민중에 한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편집국 보도 74호)
주체 91(2002)년 4월 1일

하나 민족도 하나

조국통일3대헌장

90년대통일에로 (3)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90년대 통일의 아침은 밝아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민족적인 통일열기는 미국지배층과 그 추종세력의 분렬주의적책동에 의해 랭각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1993년초에 들어와 미제와 이남집권세력은 있지도 않는 ≪북의 핵의혹≫설을 내돌리면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의 재개를 선포하고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유린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로 하여 모처럼 마련되였던 남북대화가 전면 동결되고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리행은 차단되였다. 정세는 전민족의 단합으로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온 겨레가 핵에 의한 민족존망의 위기를 겪느냐 하는 엄혹한 사태에 이르렀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때 민족의 활로를 여는 일대 구국의 결단을 내리시였다. 이해 3월 최고사령관명령으로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핵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공화국정부의 성명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였다.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지향을 ≪힘의 정책≫으로 가로막아보려던 위싱턴의 집권층과 그에 빌붙은 서울의 분렬주의자들은 이북당국과의 협상의 길로 나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대에 통일성업을 실현하여 수령님을 통일단상에 모시는 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최대의 소원이셨다. 그런데 온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민족의 대사를 마련하시다가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김일성**대원수께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시였다. 백두산천지로부터 한나산 백록담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온 겨레의 크나큰 비애와 상실의 아픔은 구천에 사무쳤다.

주체위업의 계승자이시며 민족의 구성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통한 심정을 한가슴에 묻으시고 온 겨레에게 상실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처럼 온갖 로고와 심려를 기울이신 통일대업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 일어설 것을 절절하게 호소하시였다.

어떤 난관이 가로놓이고 시련의 고비가 있어도 90년대를 통일의 년대로 빛내이시려는 것이 그분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인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이신 **김정일**령도자의 이 숭고한 의지와 신념, 그분의 비범한 령도에서 통일조국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온 겨레의 설움이 그칠줄 모르고 있을 때인 1994년 7월말에 력사적인 제5차 범민족대회개최를 제안하시였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5차 범민족대회≪민족대단결의 해≫, 1994년의 8.15를 계기로 서울과 평양, 도꾜에서 열리였다. 대회는 당면정세와 통일운동의 과제를 진진하게 토의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5차 범민족대회(평양, 서울, 도꾜)공동결의문≫과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세계의 평화애호력량에게 보내는 호소문 그리고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범민련 해외본부가 주최한 제5차 범민족대회(도꾜)도 성공리에 진행되였다.

력사적인 제5차 범민족대회는 남과 북, 해외의 각계각층 민중이 **김정일**령도자를 민족의 운명, 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러 90년대통일을 기필코 실현하려는 7천만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높이 추켜드신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90년대 통일실현의 대장정에 오른 온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끝)